

# 내년 봄, 1인가구 1000만 시대... 4인가구 10년간 100만개 ↓



## 메트로경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DX, 생존위한 필수적 혁신 4차혁명 산업계에 '이정표'

메트로경제는 오는 11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란 주제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업무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이나, 사무공간에서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대표적이다.

DX는 산업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혁신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단순 업무나 위험한 작업을 줄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작업 안전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DX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하는 이유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열풍도 DX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LLM(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더 쉽고 많은 업무 분야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DX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ESG 경영을 위해서도 DX는 필수적인 과제로 손꼽힌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아끼는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 소모와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DX는 새로운 먹거리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DX 솔루션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업에 DX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DX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일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인력 재배치 등 경영 전반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탓이다. 비용과 규제 어려움이나 아직 방법을 모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DX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해왔는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DX 전환 사례와 서비스를 살펴보고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산업계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 행사명 : 2023 뉴테크놀로지포럼
-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기조연설 :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 강연 : 이진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오경석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제9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분실공고

분실내용 : 분양계약서 분실  
동작협성휴포레시그니처상가 104호  
서울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우)07074

소유주 : 김혜민

2023년 11월 20일

행안부, 1인가구 수 992만개  
전년 971만 대비 20.1만 ↑  
전체가구 중 1·2인가구 66%  
3인가구 10년간 34만개 ↑

국내 1인가구 수가 반년쯤 후역대 처음으로 1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전체 가구 5곳 중 2곳이 1인가구였고 국민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아이를 갖지 않는 추세 속에 2인가구 역시 크게 늘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1인가구(세대) 수는 992만 개를 넘었다. 전체 가구(2369만 개)의 41.0%이자 전체 인구(5135만 명)의 19.3%에 달했다. 둘 다 역대 최고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1인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편 전체 가구 수도 완만히



지난 1970년대 산아제한 등 정부 주도 가족계획 홍보물. /국가기록원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4인가구 등의 수가 내림세인데 반해 1인가구가 급증한 영향이다.

1인가구는 1년 전(971만 명)에 비해 20만1000개 증가했다. 월평균 1만6800개 불어난 흐름이 이어진다면 향후 5개월 내 8만4000개, 6개월 내 10만 개 증가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이나 5월쯤 1인가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

여기에 2인가구(10월 584만

개)까지 합하면 1577만으로, 전체 가구 3곳 가운데 2곳(66%)이 1 또는 2인가구다. 1·2인가구는 10년 전인 2013년 10월(683만·412만)과 비교해 각각 305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태가 반영된 모습이다. 또 이 같은 행안부 통계에는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지 않는 추세도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3인가구 역시 적게나마 증가(34만 개)했으나 4인가구는 413만에서 316만으로 100만 개 가까이 줄어들었다. 5인가구도 40만 개 이상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8년 10월만 해도 4인가구 수(426만)는 2인(354만)·3인(354만)보다 많았다. 당시 1인가구는 598만 개로 전체 가구의 31.6%에 그친 바 있다.

15년간 전체 가구 수는 1인가구 급증 및 신도시 조성 및 신축 아파트 공급 등의 여파로 500만 개 가까이 늘었다. 인구 증가의 영향도 있다. 전국 인구는 2008년 이후로도 10년 남짓 미약하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2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에 전국 평균(41.0%)을 넘는 44.5%(447만 가구 중 198만)가 1인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거주민(949만 명)의 21.1%가 혼자 살고 있었다. '젊은 도시' 세종은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전체 가구의 34.7%, 도시 인구의 14.4%만이 1인가구였다.

지난달 국내 6인가구 수는 14만5000, 7인가구는 3만2000, 8인가구는 8500, 9인가구는 2600, 10인 이상 가구는 2500개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민센터서 행정전선상 작동 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 행정전선상망 '새움'과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 '말로만 신사업' 주가떡은 상장사 전면조사

금감원, 신사업 추진현황 사업목적 추가 233개사 중 55%, 129개사는 추진안해 회계처리 적정성 집중점검

감독당국이 주가부양 등을 위해 '말로만' 신사업에 진출한 상장사들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2차 전지 등 증시에서 인기를 끌었던 테마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상장사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추진 내역이 전혀 없었고, 일부 불공정거래도 의심되면서다. 회계처리부터 불공정거래 혐의, 자금조달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

개사 가운데 55%인 129개사의 경우 추진내역이 전혀 없었다. 주요 테마는 ▲메타버스 ▲가상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이었다.

금감원 회계감리1·2국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129개사 중 이미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4곳은 미추진과 관련된 자산의 손상인식 여부 확인과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감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회계분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사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했다. 대상에 오르지 않은 기업이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회계처리 위반 등을 적극 심사할 예정이다.

조사1~3국은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획조

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미 허위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다른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향후 신사업을 발표하는 회사는 주가급등 시기의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매매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시심사실은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은 진행했는지 등을 정확히 작성했는지 중점 심사를 예정이다.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조달과 관련해 실제 사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이 나오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추진 기업 중 하나인 A사의 유상증자 건에 대해 과거 신사업 관련 조달금액 사용내역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국내 '민간 할랄인증' 인도네시아 수출 OK

인니 할랄인증청-한국 기관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

인도네시아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 민간 할랄인증만으로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정으로, 양국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2022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